지방화시대에 따른 제주지역의 주환경 개선 사업에 관한 기초 연구

A Basic Study for the Improvement Project of Housing Environment in the Cheju Island Region the Era of Globalization

김 봉 애 *
Kim, Bong Ae

Abstract

Recent opening of the era of local government and management renders study tasks concerning the improvement of the housing conditions by improving the problems in the residential conditions of the cheju Island region so as to help improve the life qualities of this legion make the area as an international resort place, and thus develope the identity in the heat of the people in this region. The suggestions based on the study for the improvement of housing environment are summarized as follows :

(1) To improve the collective housing, housing construction plan shall b made in harmony with the skylines of the Hanra mountain alongside the East-West rides across the long diameter of the oval shape of the Island, which includes 1) the construction of housing complex in harmony with and taking advantage of the natural scene of the area, and 2) the construction of variable housing readjustable in accordance with each family structure of variable housings for multi-families, which are believed not to provide quality housing conditions, shall be entrained.

(2) Encouraging the construction of detached house : 1) construction of housings in which three generations can reside together according to the traditional family structure in the region, 2) construction of the pastoral housings, 3) construction of tenement housings partitioned for each two families, 4) development of sliver town in the rural area.

(3) Using the construction materials produced in the Cheju I land will help promote the development of identity in the heart of the people in this region.

* 정회원, 제주 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조교수, Ph.D.

Ⅰ. 서 론

한국의 도시화 현상은 대도시 지역의 과밀화를 초래하고, 그 결과로 주택난·교통난·공해 문제 증가 등 여러 종류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이 배경이 되어 도시 팽창 현상은, 대도시로 현저한 인구·산업의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도시에로의 인구 유입은, 최근에는 과밀화와 공해 문제와 생활 환경의 악화에 염증을 느껴, 소위 유-턴(U-Town)현상과 탈도시 등에 의해서, 그 진행이 정지한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미 팽창한 도시는, 금후 자연증가에 의해서 더욱 증가해 갈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주택난·택지난의 결과 생긴 확대(sprawl)현상은, 필연적으로 교통·통근난을 악화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도시 개발은, 이와 같은 현상과 변화의 동향을 파악하여, 더욱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되어야 한다. 국내외의 여러 사정과 마찬가지로 제주도도 산업화·도시화의 영향으로 해방 이후 50여 년에 걸쳐서 많은 변화와 발전을 이룩하였다. 주택 형태도 육지부와의 교통·통신의 발달로 제주도의 지역적 특성 을 살릴 수 있는 주택 문화보다는 육지부와 같은 건축 자재를 사용하여 같은 주택 형태를 이루고 있다. 무분별한 도시 개발과 도시로 집중한 사람들의 주택난의 해소를 위하여 제주도의 인문 지리적인 특성을 살리지 못한 주거지 조성으로 제주도 인의 정서에 맞지 않은 주거 환경이 조성되고, 관광지로서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주거 환경 조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의 제주도의 주거 현황과 주거 환경 조성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앞으로 개선 방향을 제시함으로 제주도의 특성에 맞는 주거 환경을 조성하여 지방자치 시대에 부합하는 제주도 주거의 고유성(identity)를 부여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삼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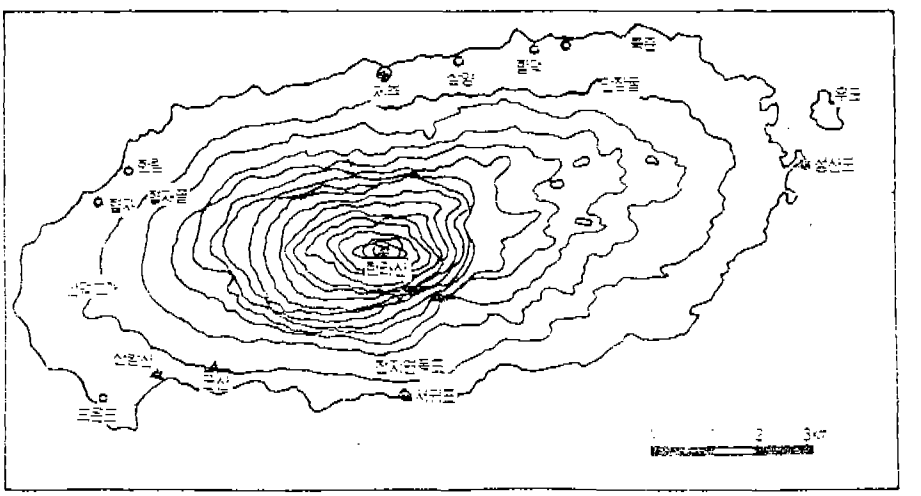
Ⅱ. 연 구 방 법

연구방법은 자료분석 및 문헌연구방법을 채택하였고, 분석한 자료는 제주도통계연보(1994), 제주도종합개발계획(1994),제주시기본계획(1992), 최근에 발표된 논문 등을 사용하였다. 분석내용은 주환경 개선사업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Ⅲ.제주도의 인문지리적특성[1)2)]

1.지형

그림 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주도는 화산 폭발에 의한 용암 분출로 형성된 섬으로 주화산인



〈그림 1〉 제주 지형도

한라산을 중심으로 동서 방향이 긴 타원(동서 약 73km, 남북 약 31km)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모양으로 인해 동서 사면은 경사가 완만하고 남북 사면은 경사가 급한 지형을 이루고 있다.

2.기후

섬의 남쪽과 북쪽의 기후가 약간 다르다. 서귀포시는 제주시에 비해서 연평균 기온이 0.8° C 가량 높으며, 연평균 강수량도 443.6mm 많으며 일조시간도 219시간이 더 길어 농업에 더 적합한 기후 자원을 가지고 있다.

3.취락의 특성

일제시대까지는 취락의 분포가 해안 지대와 중산간 지대를 중심으로 되어 있었으나, 해방 이후 1948년의 4.3사건에 의한 사회적 요인과 수원이 풍부하고 외부 지역과 연결이 용이하다는 자연적인 요인으로 해안 지대로 이주가 진전되어 현재는 한라산을 중심으로 염주알 형태로 해안 지대에 취락이 집중되어 있다. 오랜 제주도의 중심인 제주시와, 70년대 이후 농업과 관광산업의 발달에 힘입어 부각되어 온 서귀포시가 남과 북에 대규모 시가지를 형성하고 있으며, 각 읍면의 중심지에 소규모의 시가지가 형성되고 있다. 읍면 중 중규모의 시가지를 이루고 있는 곳으로는 동쪽에 성산읍, 남쪽에 남원읍, 서쪽에 한림읍과 대정읍의 읍소재지를 들 수 있다. 취락 분포의 특성은 지형의 경사를 기반으로 하는 농업의 특성에 의하여 그 형태가 특징지어지고 있다. 북측은 제주시의 구시가지와 신시가지 등 중심 시가지가 해발100m 이하의 평탄한 지역에 위치하여 있고 그 외에는 매우 작은 규모의 취락들이 산발적으로 입지하고 있다. 남측은 표고 200m 이하 지역의 폭이 여타 지역에 비하여 좁고 경사가 급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일주 도로를 따라 비교적 큰 규모의 촌락들이 입지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고, 중산간 지역에 취락이 극히 적은 것이 그 특징이다. 서측은 중·소규모의 취락들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입지하고 있다. 이러한 분포 형태는 해발 150m에 이르기까지 골고루 퍼져 있는데 이는 200m 이하 지역의 폭이 넓고 경사가 완만한 것을 반영하고 있다. 동측은 소규모의 취락들이 무리를 이루거나, 단일 중규모 취락들이 해발 100m 이하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4.인구

표 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3년 현재 제주도의 총 인구는 511,000명이며, 제주도 전체 인구의 64.3%인 328,579명이 시부인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군부에는 182,440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그중 65세이상이 6.14%를 차지하고 있다.

5.가족제도

제주도 가족은 생활 조건과 관련된 특수한 가족 구조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거주 형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철저한 분가 원칙을 찾을 수 있다. 장남도 혼인하면 분가를 하며, 한 울

〈표 1〉 시군부별 세대 및 인구

(단위 : 세대, 명)

	세 대 수	인 구			인 구 밀 도		세대당	전국인
		전 체	남	여	제 주 도	면적(km²)	인 구	구밀도
1988	126,748	508,992	249,822	259,822	278.91	1,824.92	4.02	
1989	130,539	253,361	263,585	28,322	283.22	1,825.26	3.96	
1990	131,637	514,608	254,208	260,400	281.88	1,825.61	3.91	438
1991	141,461	496,119	244,141	251,978	271.73	1,825.80	3.51	
1992	146,961	506,222	249,583	256,639	277.20	1,825.80	3.51	
1993	150,769	511,019	252,284	258,735	279.77	1,925.21	3.4	
제주시	73,700	243,301	120,050	123,251	956.60	254.34	3.3	
서귀포시	24,809	85,278	42,398	42,880	324.03	263.03	3.4	
북제주군	29,411	100,046	49,191	50,855	141.74	705.85	3.4	
남제주군	22,394	82,394	40,645	41,749	136.59	603.23	3.6	

제주도 통계연보 각연도

타리 안에 거주하더라도 서로 다른채(棟)에 따로 생활한다. 주거의 독립뿐만 아니라 취사와 경제생활도 완전히 분리한다. 제주도의 이상적인 가족 유형은 나이가 들어도 움직 일 수 있는 한 자식에 의지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노쇠, 사망 등에 의한 자활 능력의 상실에 의해서만 직계가족의 유형을 취한다. 이광규는 제주도의 가족을 핵가족적 특성의 독립형 가족이라 하였고 그것이 여자 중심적이라는 점이 중요하다고 하였다(여자 중심의 독립형 가족). 이는 생활 단위 중심을 모(母)라고 본 것인데, 같은 울타리 안에 거주하더라도 시어머니가 몹시 노쇠하지 않으면 며느리에게 결코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생활을 이끌어 간다. 시어머니가 사망하고 시아버지가 생존하면 자동적으로 며느리가 모시게 된다. 모계(母)중심적 또는 여자 중심적 가족이라는 것은 이러한 특수한 성격을 말하는 것이다.[3]

6.제주도 민가

제주도의 민가의 평면형은 2간형, 3간형, 4간형 등 3종류로 분류되며, 이중에서도 기본형이며 표준형이라 할 수 있는 것은 3간형이다. 주요 평면의 요소는 정지, 상방, 고팡, 챗방 등 이다. 건물 배치의 일반형은 二자형이며 분리된 ㄱ자형, ㄷ자형, ㅁ자형은 二자형의 변형이며 일자형은 二자형의 미발달형 또는 쇠퇴형으로 생각된다. 건물과 건물은 연접되지 않고 철저한 별동형 배치를 하고 있다. 부속 건물로는 바끄리(바깥채) 모커리(옆채) 이문끄리(대문채)등이있다.[4] 〈정지〉에는 방에 불을 때기 위한 부뚜막 시설이 없고 한쪽 편에 화덕을 두어 음식을 만들 때만 사용한다. 난방은 〈굴목〉이라 하여 〈큰 구들(큰방)〉옆으로 작은 공간을 두고 이곳에서 불을 지피고 있다. 즉, 이 지방의 온난한 기후 때문에 온돌 난방이 크게 발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건물을 둘러싸는 외벽이 돌담 벽으로 거센 바람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볼 때, 이 지방에서 겹집이 발달한 것은 난방 효과를 얻기 위해서 보다는 바람의 영향이라 생각된다. 육지와 다른 또하나의 특징은 부속채에도 살림채와 같이 부엌이나 마루, 방 등이 똑같이 설치되어 있는 집이 많다는 점이다. 아들이 결혼을 하여 같이 살아도 다른 건물 안에서 별도로 식사를 준비하는 관습이 오래 전부터 있었다고 하며 이에 따라 한 집에 두개의 살림채를 만드는 경우가 발생되었다고 한다. 이것은 가옥 구조의 차이를 만드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 할 수 있다.[5]

7.관광산업의 지역경제효과

표 2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주 관광 방문객은 1961년 11,000명에 불과하였으나 1993년 3,436,000명에 달하여 관광 수입도 851,600억원에 이르고 있다.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총고용인은 162,000명으로 지역총고용의 65.3%를 차지하므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매우 크다.

8.주택현황 및 보급율

표 3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가구수를 기준으로 한 주택보급율은 1980년 73.2%에서 1990년 68.4%로 감소하였으나, 1990년 현재 전국 평균 63.0%보다는 높다. 시부와 읍면부와의 격차가 매우 커서 시부지역은 주택 보급율이 60%에도 미치지 못하는 반면, 읍면부에서는 90%에 가까운 높은 보급율을 보이고 있다. 과거 10년간 총가구수는 제주도 전체적으로 연평균 2,614가구씩 증가하였다. 읍면부의 가구수는 연평균 1,834가구씩 감소한데 반하여, 시부지역은 연평균 4,454가구씩 증가하여 1980년도에 비해 2배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시부지역의 인구증가 및 핵가족화에도 기인하나 읍면부에서 시부지역으로의 인구 이동이 주요 원인이다. 주택의 증가율은 가구의 증가율과 비슷한 수준이나, 시부지역에서는 가구수와 주택 수의 절대 양의 격차가 점차 심화되었다.

9.사용되는 건축 재료

표 4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건축물의 외벽 재료는 벽돌, 석조, 시멘트 등의 현대적 건축 재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나무, 흙벽돌 등 고유 건축 재료는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았다. 이러한 경향은 전지역에 걸쳐 나타나며 점차 고유 재료가 현대적 건축 재료로서 대처해 가는 현상을 보였다. 지붕 재료로서는 전통적 형식이라고 볼 수 있는 초가 지붕의 비율이 매우 미약하고 반면에 슬레이트 또는 슬래브 지붕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표 2〉 제주도 방문 관광객수및 관광수입

(단위 : 천명, 백만원)

연 도	관광객(명) 내국인	관광객(명) 외국인	관광객(명) 계	관광수입
1961	11	(190)	11	23
1971	294	14	308	2,366
1981	682	42	724	42,825
1991	2,992	275	3,204	513,200
1992	3,179	243	3,422	797,000
1993	3,186	277	3,436	851,600

제주도 통계연보 각연도

〈표 3〉 유형별주택수 및 보급율

(단위 : 호, %)

구 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주거건물내 주택	총 수	보급율
'80 제주도	74,418	672	147		1,858	77,095	73.2
시 부	19,472	639	108		1,035	21,254	54.4
읍 부	17,853		33		33	18,376	74.0
면 부	37,093	33	6		6	37,539	91.9
'85 제주도	74,892		1,484		2,656	80,511	68.0
시 부	34,291	1,479	1,374		2,050	39,194	55.7
읍 부	31,391	1,479	41		502	31,934	85.5
면 부	9,210		69		104	9,383	89.0
'90 제주도	77,464	5,309	2,303	1,848	2,911	89,835	68.4
시 부	36,593	5,226	2,187	1,798	2,363	48,167	57.6
읍 부	31,114	28	69	46	410	31,667	86.7
면 부	9,757	55	47	4	138	10,001	64.0

1980, 1995, 1990년 인구 및 주택 센서스, 통계청

〈표 4〉 주택의 건축재료 및 지붕재료

(단위 : 호)

구 분		제주도	시 부	읍 부	면 부	총주택수
외벽	나 무	2,538	815	1,207	517	5,078
	적벽돌, 돌	16,443	6,008	8,033	2,402	32,886
	시멘트제품	49,905	24,357	19,615	5,933	99,810
	철근콘크리트	15,837	14,399	1,163	275	31,674
	흙,흙벽돌	4,832	2,414	1,588	830	9,664
	기타	279	174	61	44	558
지붕	기 와	4,716	2,829	1,478	409	9,432
	슬레이트	50,829	18,958	24,057	7,814	101,658
	슬라브	28,359	24,256	3,211	892	56,718
	함석	969	367	438	164	1,938
	짚,갈대	4,603	1,513	2,401	689	9,206
	기타	359	244	82	33	718
총 주 택 수		89,835	48,167	31,667	10,001	179,670

1990년 인구 및 주택 센서스, 통계청

Ⅳ.제주도의 주거 환경의 문제점

1.제주도에서 산출되는 건축 재료의 미활용

양건의 제주 지역 현대 단독주택의 특성에 관한 연구[6]에 의하면 건축 재료 사용면에서 지붕의 재료는 오지기와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제주 송이를 사용하는 경우는 특수한 경우이며 외벽의 재료는 수성 마감 및 타일 마감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고급 재료인 벽돌 및 석재류는 전면 및 접근로 측면만 시공되고 있다고 연구되었다. 또한 기와에 페인트를 칠하여 조잡하고 인위적인 느낌을 주고 있고 제주도의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제주도에서 산출되는 건축재를 활용하는 경우가 적으므로, 육지부의 주거 형태와의 차이점을 거의 찾을 수 없는 현실이다.

2.제주도인의 정서에 맞지 않는 평면 구조

제주의 민가 형태와 가족 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핵가족 형태의 집합 주택의 평면 형태로는 나이든 노인들이 자식과 함께 살고 싶어도 지금까지 살아온 가옥 구조(평면구조 등)와 너무나 상이하므로 함께 살 수 없는 상황이다.

3.공동화 현상

표 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주도의 지역적인 균형 발전을 이루지 못하여, 제주시로 인구가 집중 이동 현상이 나타나면서, 중산간 지대 및 읍면부의 인구가 매년 감소하고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인구가 이동하여 중산간지대의 마을에 사람이 살지 않는 마을도 나타나고 있다.

4.대규모 개발의 문제점

지역의 특성,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대규모 개발로 기존의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제주시의 신시가지 개발과 일도·이도지구(제주시가 중앙생활권으로 개발한 지역)의 택지 개발로 인하여 녹지 시설의 부족 등을 야기시키고, 지역간의 사회 기반 시설의 부족을 초래하고 있다. 서귀포시의 신시가지 개발로 인하여 대규모의 집합 주거 단지를 설립하면서 제주도의 주환경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건설하여 육지부의 신도시와의 개발과 같은 대단위 주거 단지를 조성하여 제주도의 아이덴티티를 부여하지 못했다. 또한 신시가지 조성으로 젊은 세대의 이주로 국민학교 시설 부족을 초래하여 저학년의 과밀학급을 조성하고 있다.

5.국제적 관광지로서의 기능의 미비

육지부와 차이점이 없는 주택 및 건물의 건설로 섬인 제주도 고유 건물의 특색 및 자연경관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외국 관광객 및 국내의 관광객의 유치에도 정체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Ⅴ.주거 환경 개선 사업

1.집합 주택의 개선 방향

제주도는 1976년 제주시의 인제 아파트를 시초로 하여 아파트가 서서히 보급되기 시작했다. 제주도의 중심지인 제주시 지역의 아파트 건설 현황을 보면 1983년까지는 아파트에 대한 인식 부족과 공동주택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지 않아 보급률이 낮았다. 그러다가 1988년부터 아파트 선호와 정부의 주택 건설 200만호 건설 정책의 영향으로 아파트 건설이 많이 이루어졌다. 주택의 양적 공급보다는 질적인 향상에 주목하여 주택 공급 계획을 수립하며 제주도의 지역적인 특성상 관광지로의 특색을 살리기 위하여 제주도에서 산출되는 건축 자재를 활용함으로써 제주도의 정서에 부합되는 주환경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형식을 채택 한다.

1)자연경관을 살린 住棟

제주시지역은 남측의 서귀포 지역에 비하여 경사가 완만하고 서귀포 지역은 해안에서 급경사를 이루고, 섬의 동측인 성산 지역은 비교적 완만한 경사를 이루는 초원을 형성하고 있고, 섬의 서쪽인 한림·대정지역은 해안에서 해발 200m까지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으므로 등고선을 따른 주택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7]. 제주도 지형의 완만한 경사를 살려서 건물을 배치하는 等高線을 따른 住棟, 중층 정도의 높이와 전망을 가지면서 직접 지면에 접하고 각호가 지상 혹은 옥상에 정원을 가지고 저층 연속주택의 거주성을 갖추고 있는 set back型 住棟, 평탄지에 건설되는 중층

의 주동 형식, 지형을 그다지 손상시키지 않도록 동서의 경사지에 건설하는 단층 분리형, 동서의 경사지를 이용하는 戶境엇갈림 형식을 채택하여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룬 형식을 채택해야 한다.

2)가족 구조를 고려한 가변형 구획 배치 선택

가족의 구성은 시간 경과와 함께 보면, 몇 가지의 단계를 지나면서 수십 년을 하나의 주기로서 반복이 행해진다. 이와 같은 가족 구성원의 성장에 따른 가족의 주기적 변화를 lifecycle, 변화의 각 단계를 lifestage라고 한다. 각lifestage에서는 가족수, 구성, 생활 방법, 주거에 대한 요구가 다르게 되고 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주거 방법에 관해서는 큰 공간을 순차적으로 나누는 방법, 같은 평면을 나누어 사용하는 방법, 증축 등을 생각하여 변화시킬 수 있는 구획 배치를 택해야 한다.

3)저층중심의 주거 단지 개발

인구밀도 등을 고려하여도 육지부 등의 고층 집합 주거의 개발보다는 저층중심의 주거 단지 개발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4)2호연립을 건설

지가 상승으로 인하여 택지 구입의 문제점 등이 발생하여 고밀도의 집합 주택으로 주택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제주도는 육지부와 비교할 때 인구밀도가 낮으므로 지형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2호연립주택의 개발이 바람직하며, 제주시와 서귀포의 구시가지와 신시가지에 조성되어 있는 다세대주택은 건축주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편익 시설의 미비 등으로 더욱 열악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므로 다세대 주택의 건설보다는 연립 주택을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2.단독주택을 중점 건설

제주도의 경우 인구밀도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높지 않기 때문에 고층 주택의 건설보다는 단독주택을 개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가족 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여 3세대 이상이 함께 거주할 수 있으면서, 취사 공간과, 출입구를 별도로 구비한 단독주택이 제주인의 정서에도 합당하다고 생각된다.

1)3代주택을 건설

제주도의 전통적인 가족 제도를 고려하여 2세대 이상이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부엌 등을 2개소 이상에 설치하는 평면 구성을 개발하고, 작은 정원을 만들어 우영(텃밭)을 설치하면 제주도인의 정서에 부합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2)전원 주택을 개발

제주도 전역은 모두 하루 생활권이 가능하므로 제주도의 중심지인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중심으로 제주도의 전통 가옥의 평면 구성을 고려하여 시외 지역에 전원도시를 건설하며 주거 형태의 특성을 살린 우영(텃밭)을 만들어 사용하면 자녀들의 정서교육에도 유용하면서 인구 분산으로 인하여 주택난의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4)전원형 노인 주택(실버타운)개발

전세계적으로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돌입하고 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노화하고, 쇠퇴해지는 시기이므로 잃어버린 것을 보완하는 각종 대응책이 필요하다.[8] 주거 환경도 노인들의 특성을 근거로 정비·개선될 필요가 있다. 의학의 발달로 수명이 연장되고 라이프사이클의 변화로 과거에 비해 현저하게 길어진 노후의 생활을 어디에서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가 큰 문제이다. 통계청 인구 통계에 의하면 제주도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의 노인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90년 5.80%, 93년 6.14%로 90년 전국 4.90%에 비하여 노인들의 비율이 높으며 앞으로 계속 증가 할 추세이다. 제주인들의 이상적인 가족 유형은 나이가 들어도 움직일 수 있는 한 자식에 의지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노쇠, 한쪽 배우자의 사망 등에 의한 자활 능력의 상실에 의해서만 자식들과 동거하는 형태를 취하므로 나이들어 은퇴한 후에도 따로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는 노인들만을 위한 주거 건설이 필요하다. 은퇴하였기에 통근의 부담도 없고 자녀는 모두 성장한 노년들은 한적한 전원생활을 꿈꾸게 되므로 신체상의 쇠퇴와 건강을 고려하여 기후가 온난하고 경관이 뛰어나며 교통이 편리한 시가지 주변에 노인 전용의 실버타운을 건설하면 제주인의 정서에 부합된다고 생각된다. 자녀들과의 왕래는 지금의 교통망으로 일일생활권에 들어가므로 기본적인 편익 시설을 갖추는 배려를 통해 아늑하고도 여유있는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3.제주도에 생산되는 건축 재료의 활용

주택에 관해서도 세라믹 등 신소재의 이용, HA(Home Automation)등의 첨단 기술의 도입이 눈부시게 이루어지고 있다. 내구성, 안전성, 거주성이 우수한 주택 건설을 위한 기술개발이 이루어져 어느 지역에서도 거의 같은 건축 재료와 구성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제주도의 경우는 주요 산업이 관광업이므로 지역적 특성을 살려서 지붕 재료로서는 송이를 사용하고, 외장재의 재료로서 현무암의 돌을 사용하여 제주만이 가지고 있는 주거 형태의 아이덴디티을 가진 주거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Ⅵ.결 론

최근 지방자치 시대의 본격적 개막에 따라 각 지방자치 단체마다 주택정책 등 주요 정책 과제를 내세워 지방의 특성을 살리려고 하는 바 현재 제주도의 주거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아프로치로 활용하여 국제적 관광지로 도약하려고 하는 제주도의 지역 특성에 맞는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제주도만의 아이덴디티를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방법은 자료분석및 문헌연구방법을 선택하여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주환경 개선사업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1) 집합 주택의 개선 방향으로는 한라산을 중심으로 동서 방향이 긴 타원형으로 이루어진 지형을 살려서 ①자연경관을 살린 住棟으로, 等高線을 따른 住棟, set back型 住棟, 단층 분리형, 戶境 엇갈림 형식을 채택하여 지형을 살린다. ②가족 구조를 고려한 가변형 구획배치를 택하여, 큰 공간을 순차적으로 나누는 방법, 같은 평면을 나누어 사용하는 방법, 증축, 개축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이때 주거 환경이 열악한 다세대 주택의 건축은 억제한다.

(2) 단독주택의 건축을 중점으로 건설하며 제주도의 전통적인 ①가족 제도를 고려한 3代가 거주하는 주택을 건설 ②전원 주택을 개발 ③2호연립을 건설 ④전원형 노인 주택(실버타운)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생각된다.

(3)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건축 재료를 활용하여, 주민 정서에 부합 및 관광 지역의 역할도 잘 수행하여 제주도의 아이덴디티를 부여하게 한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자료를 기초로 하여 문헌분석에 의존하였으나, 앞으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주환경에 관한 의식 조사 및 자연의 퍼텐셜(potential)을 살려서 환경과 공생할수 있는 주택의 계획과 기술개발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1) 姜錫午 "신한국 지리" 대학 교재 출판사 1985
2) 제주도 "제주도 종합 계발 계획" 1994
3) 김혜숙 김행신 "가족구조와 주거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제주 대학교 논문 집 1991
4) 張保雄 "한국의 민가 연구" 보진제 1992
5) 姜榮煥 "한국의 주거 문화의 역사" 기문당 1992
6) 梁膳 "제주 지역 현대 단독주택의 특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 학위 청구 논문 1991
7) Dieter Prinz 著 朴贊茂 監修 "단지 계획 설계 방법" 국제 1989
8) 건축 자료 연구회 譯 "노인의 주거 환경" 보원 1992